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논평		
	보도일시	2018. 12. 06.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12. 06.	총 2매 (별첨 0건)

**오늘 정부 발표는 조기달성이 아니라 조삼모사
 문재인 정부 공약 국공립 40% 오늘 발표는 35% 엄연한 후퇴
 유치원 비리 사태 후 목표 상향은 고사하고
 공약 미이행 계획 발표한 것은 학부모 기만**

□ 오늘 오전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로 당초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치원 비리 사태가 벌어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 대선 당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것이 과연 최선의 노력인지 실망스럽다.

□ 작년 11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취원율 40% 공약은 이행 불가능하며,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늘 발표자료를 통해 처음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당초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을 500학급(원아 1만원)씩 확충할 계획이었고, 유치원 비리 사태와 이에 따른 학부모 요구를 반영 2019년에만 한시적으로 1000학급을 확충해서 당초 목표를 1개년 조기 달성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골자다.

■ 2018년 유치원 현황

설립주체별	유치원수	학급수	원아수
계	9,021	37,748	675,998
국립	3	15	249
공립	4,798	10,881	172,121
사립	4,220	26,852	503,628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따른 취원율 예측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치원 원아수	676,000			600,000	
국공립 원아수	172,000	192,000	202,000	212,000	212,000
사립 원아수	504,000			388,000	
국공립 취원율	25.44%			35.33%	

□ 즉,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여 2021년의 유치원 총 원아수를 60만명으로 잡더라도 국공립 취원율은 35%가치며, 문재인 정부 공약 40%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40%를 목표로 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든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는 과거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이행하는 조기달성안을 내놓았고, 학부모가 보기에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 19년 3월 신증설 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들이 현재 폐원 협박과 유아교육 공백 위기에 놓인 지역에 배치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다. 예컨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서교동에 학부모에 폐원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데, 오늘 발표한 마포 지역 국공립 신증설 학급은 성산동에 1학급이 전부다. 즉 오늘 발표한 확충계획은 내년 3월 유치원 대란에 대한 대비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별로 파악해 봐야겠지만 오늘 발표와 별도로 신학기 유치원 대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밖에 국공립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동의하나 당장에 국공립이 사립유치원을 대체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통학버스 전면 시행이나 출근 시간(오전 연장) 운영 등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고 학부모 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은 교원 위주로 운영되게 사실이다. 이제는 국공립도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